

책으로 확인하는 못다 이룬 꿈

최근 타계한 김소진 · 이균영 · 이 태, 세 작가가 남긴 책들

사람은 갔어도 책은 남는다. 지난 연말 이후 반년 사이에 세상을 떠난 세명의 소설가는 세대는 다르지만, 진지한 작품세계를 보여줬기에 그들의 빈 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태씨는 새 소설집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타계했고, 이균영씨와 김소진씨는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들은 새로운 감각을 빙자한 몰역사적인 소설이 판치는 가운데 분단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는 공통점을 갖기도 한다.

김소진씨가 채장암 선고를 받은 것은 올해 초. 지난해부터 전업작가로 나서 더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였던 터라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생명 선고는 문단에 충격을 주었다. 범문단적으로 그의 쾌유를 돕자는 운동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지난 4월 22일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김씨는 91년 데뷔 이후 길지 않은 작품활동 기간 동안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에서 콩트와 창작동화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냈는데, 이러한 역량은 그가 남긴 일곱권의 책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설집이 3권, 장편소설이 2권, 그리고 창작동화와 콩트집이 각 1권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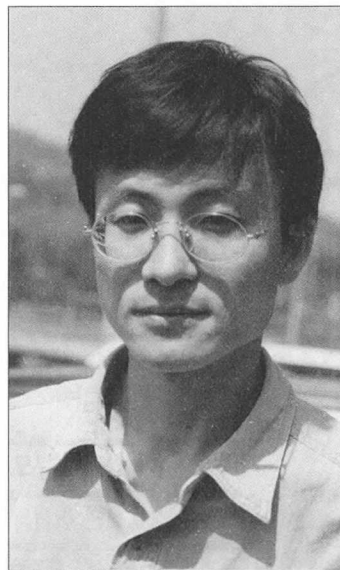
첫번째 소설집 《열린 사회와 그 적들》(술, 1993)에 실린 11편의 작품은 소설적 긴장감을 고르게 유지하며 새로운 지식인소설의 유형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이 책의 서두를 장식하는 <취잡기>는 작가의 데뷔작으로 김소진 소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소설 읽기를 방해할 정도로 질편한 고유어의 구사가 두드러지지만, 여기에는 그의 작가적 환경도 스며 있다. 그는 스스로 쓴 연보를 통해 월남한 아버지가 열성적으로 꾸려간 한 평짜리 구멍가게가 이 소설의 무대였음을 밝히고 있다.

고립된 불빛은 하나도 없다

두번째 소설집 《고아편 뽕덕어멈》(술, 1995)에 수록된 <혁명기념일>은 김소진 역시 80년대의 '세레'를 받은 작가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신념을 바꿔 '잘 나가는' 선배와 신념을 지키며 여전히 밑바닥을 헤매는 동료로 대비시키지만, 작가는 개입하지 않고 상황을 '보여주기'에 그친다. 유고집에 묶일 <신풍근 배커리 약사>(《문학과사회》 1996년 겨울호)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지난 여름 있었던 '연세대 사태'를 소재로 한 이 소설은 작중인물의 입을 빌려 더 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저 불빛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가물가물한 게 불면 곧 꺼질 것 같지만 그 둘레에서 너 명의 식구들이 곤한 몸으로 앉아 힘겹게 빛내는데 것이라는 생각 안 해 봤니? 저 혼자 고립된 불빛이란 세상에 하나도 없단다. 하나도 없어요."

95년에는 첫번째 장편소설 《장석조네 사람들》(고려원)을 펴냈고, 지난해에는 각 분야별로 무려 네권을 출간했다. 세번째 소설집 《자전거 도둑》(강), 창작동화 《열 한 살의 푸른 바다》(국민서관), 콩트집 《바람부는 쪽으로 가라》(예문), 장편소설 《양파》(세계사)가 그들이다.



타계한 김소진(왼쪽), 이균영씨.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민음사)와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살림)는 다른 분야의 일과 소설작업을 겸업했던 두사람의 유고 소설집. 지난해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균영씨의 유작을 묶은 《나뭇잎들은...》에는 표제작과 <방곡> <자유의 먼길> 등 세편을 담았다. 이 소설들은 삶은 어두운 부분을 긍정하려 했던 작품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제8회 이상문학상 수상을 통해 소설가 이균영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대표작 <어두운 기억의 저편>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문학사상사, 1984)으로 묶여 독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다. 기성작가와 차별성을 가진 문체와 탄탄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을 묘사하면서 이산가족의 비극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산가족찾기 캠페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선불리 목적성을 표출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의 문제에 접근해 호응을 받았다.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을 《바람과 도시》(대학사상사, 1985)와 《멀리 있는 빛》(정음사, 1986)으로 정리한 다음, 《노자와 장자의 나라》(중앙일보사, 1995)를 선보이기까지 10년 동안 침묵한다. 전공인 역사학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93년 이균영 교수는 《신간회 연구》(역사비평사)를 펴내며 소설가의 이미지를 불식시킨다.

이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은 수정 보완한 이 책은 반일민족협동전선체였던 신간회의 창립과 해소를 다룬 연구서. 사료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에 바탕을 두면서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접근으로 학계에 뚜렷

한 업적을 남겼다. 이 책의 머리말을 통해 소설 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책 저자 약력란에 문학 경력을 넣는 문제에 대해 나는 오래 생각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소설쓰기 혹은 '문학적인' 내 삶은 역사공부를 포함한 나머지 생활 거의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것은 역사가이 예술의 일반적 개념에 포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완전히 소설쓰기와 절연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신적으로 여전히 '문학적인' 것에 머물렀다."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

《시인은 어디로 갔는가》는 빨치산 수기 《남부군》을 쓴 이태씨의 소설집. 출간을 앞둔 지난 3월 6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유고 소설집이 되었다. 간결한 문장으로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를 다룬 소설 네편을 수록했다.

표제작은 작중 화자가 남부군 시인 김용의 유해를 들고 지리산 세석평전을 찾아가 옛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고, <전쟁사의 언덕>은 한국과 일본의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젊은이들을 내세워 양국 사이에 맺힌 응어리가 사랑과 우정을 방해하는 정황을 보여준다. 회상록 형식의 <무심천 세시기>와 <지리산이여 안녕>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빨치산 생활의 후일담을 그렸다.

《비극의 사령관 이현상》 《천왕봉》 《여순병란》 같은 숨겨진 역사 발굴에 힘썼던 이태씨의 저서 목록에 의외의 책이 한권 보인다. 《한글공문편람》이 그것. — 최성일 기자

